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고린도후서 · 롯기
갈라디아서 · 사무엘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1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고린도후서 · 롯기
갈라디아서 · 사무엘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안식(安息)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
농사의 수고를 마친 땅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초겨울입니다.
봄에는 어여쁜 꽃을 피워내고
여름 내내 푸르른 잎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새 봄을 기다리며 쉬고 있습니다.
아, 겨울철 자연의 짧은 안식 속에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디 자연만 그런 긍휼을 누리는가요?
죄에 시달리는 우리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품에서 쉬을 얻으며(마 11:29),
고된 사역으로 몸과 마음 지친 이들
주님이 이끄시는 '한적한 곳' (막 6:31)에 가서
달콤한 쉼과 위로를 얻으니,
이런 쉼과 위로는 자연도 시샘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달픈 인생길의 참된 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 있으니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거기서 쉬며 새 힘을 얻습니다.

2003년도의 단기선교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올해의 마지막 두 달을
주님이 이끄시는 '한적한 곳',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으시고
복음을 위해 정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늘 헌신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3년 11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사무엘상 서론

사무엘 상 · 하는 이스라엘의 초기 두 왕들, 곧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책이다. 타락한 제사장들과 사사들로 인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를 기록으로 담은 것이 사무엘상 · 하, 열왕기상 · 하, 역대상 · 하인 것이다. 특별히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사사로 소명을 받은 일부터 시작하여 사울의 최후 몰락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패역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사사시대의 길고 긴 타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적악 속에서 방황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출생과 이후의 사역을 보면서, 패역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위인전을 읽듯이 본 서를 읽지 말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말이다. 특별히 본 서는 한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둘째, 언제나 외적인 제도만 고쳐지면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맞물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왕을 세움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후에 초대 임금 사울을 비롯한 악한 왕들의 악정 때문에 백성들이 당한 곤란과 고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외적인 개혁, 제도적인 개혁에만 머무는 인간의 어설픈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인하도록 하자. 또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부패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참된 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자.

셋째,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그 끝이 한없이 비참했던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지극히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런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

자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었고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변질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며 그것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세상의 왕은 아무리 선한 왕일지라도 언제나 실수와 범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였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나중에 죄를 범하여 백성들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본서를 읽으며 인간 왕의 연약함과 악함을 확인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고 보배로운 것인지 깨닫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와 임금으로 주셨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그 분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평한 홀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히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본서를 읽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도록 하자.

내용분해

1. 최후의 사사 사무엘 / 1:1-7:17

- 1) 사무엘의 유년기와 그의 소명(1:1-3:21)
- 2) 블레셋의 침입(4:1-7:2)
- 3)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7:3-17)

2. 최초의 왕 사울 / 8:1-31:13

- 1) 왕이 된 사울(8:1-12:25)
- 2) 사울의 통치 실패와 버림 받음(13:1-15:35)
- 3) 기름부음 받는 다윗(16:1-18:5)
- 4) 다윗을 살해하려는 사울의 음모(18:6-20:42)
- 5) 다윗의 유랑생활(21:1-28:2)
- 6) 사울의 최후 몰락(28:3-31:13)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14절),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진정한 사도인지를 의심하며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며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스스로 진정한 성도인지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여부를 헤아려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5-10절). 끝으로 11-13절에서는 문안인사와 삼위일체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바울에게 비난과 모함을 일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바로 자신이 비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 7:7-8).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당해 모압으로 내려갔으나 그 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1-5). 그러던 중 때마침 고향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합니다. 이 때 큰 며느리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6-14).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끝내 거절하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15-18)라고 말하며 끝내 따라옵니다.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고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간 것을 회개하였습니다(19-22).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좇아 이방 땅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결국 풍지 박산이 났습니다. 그들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가능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환경에 초월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롯이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롯에게 생활의 곤란이 닥쳐왔습니다. 롯은 이사를 주위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러한 착한 롯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발로 인도하셨습니다(1-7절). 롯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보아스는 특별히 롯을 환대하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 그를 위해 이사를 많이 흘리게 하였습니다(8-16절). 집으로 돌아온 롯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무를 사라인 것을 알고 롯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곳에서만 이사를 줍도록 당부하였습니다(17-23절).

롯은 지극한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롯은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같은 은혜를 베푸느냐고 물었습니다. 롯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사실 이처럼 은혜 받지 못할 자로서 은혜를 입은 것은 롯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룻과 보아스의 극적인 만남을 기록한 앞 장에 이어 본 장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리를 타작하는 날 보아스에게 찾아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도록 요청하라고 명하였습니다(1-5). 이에 룻은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 옷을 단정히 하고 밤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곁에 누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룻을 가상히 여기고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무를 자가 없다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6-13). 룻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은 나오미는 일이 성사될 때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14-18).

룻과 보아스가 만나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룻은 9절 말씀에서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므로 새로운 생명, 곧 자녀를 얻어서 자신 본 남편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무를 자로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기업 무를 자인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찢더라도 또 모진 핍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② 총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룯과 보아스가 드디어 결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룯을 돌려보낸 보아스는 아침에 성문에 나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친족에게 기업 무를 책임을 수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거부하면 자신이 기업을 무를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1-6). 이에 다른 친족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7-12). 마침내 보아스는 룯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았는데 그는 다윗의 조부가 되었습니다(13-17). 본 장은 마지막으로 룯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자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13-17). 이와 같이 본 장은 인간의 세밀한 것까지 주관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를 책임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친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순간적인 재물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신령한 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골 3:2). 온 세상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골 3:1).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는 간단한 인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1-5). 인사 후에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비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질책합니다(5-10). 그는 복음의 유일, 절대성을 밝힘으로써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가 복음에 대한 배교(背敎)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어 회심 과정과 사도로 활약하기까지의 초기 행적이 고백조로 서술되고 있는데(11-24),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과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기 위한 의도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기의 예전 행적을 들추어냄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자 그의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욕되게 하는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이신칭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중심 되는 증거, 곧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봉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 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과(1-10)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 그의 율법적인 외식 행위를 책망한 부분(11-14),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의 진리가 강조되어 있는 부분(15-2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실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복음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대단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적인 외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외식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외식하는 생활을 한다면, 이는 이웃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작은 부분에서도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살 때 그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신칭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율법의 행위(할례 등 구약의 의식)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본 장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1-5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6-14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15-23절), 믿음과 율법의 관계(24-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11절). 구약의 많은 의식을 포함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롬 7:12). 그러나 인간의 죄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기보다는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애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하여 오직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정체와 한계를 분명히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본 장은 상속자의 비유(1-7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8-20절) 그리고 두 아들 비유(21-3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속자의 비유에서 후견인은 율법을 의미하고 장성한 후의 상속자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즉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장성하면 그는 후견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 비유는 약속의 언약으로 난 이삭과 계집종(하갈)의 몸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비교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뿐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요 8:31-32).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얻는 양심의 만족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기 몸을 절제하며 복종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롬 12:1).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천국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 안에 자유하는 은혜를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본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유익(1-6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13-15절)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16-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 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 즉 죄악 된 본성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22절).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령으로 행할지니”(25절).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길로 제시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는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만 받고 여타 율법 조항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으며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장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생활(1-10절), 바울의 자랑(11-16절) 그리고 바울의 부탁과 축원(17-18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으며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전 1:18).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요일 4:10).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14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바야흐로 왕정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사사로서 준비된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는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었지만(1-8절)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의 기쁨을 맛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서원의 기도였고(9-11절) 하나님은 긍휼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12-20절). 한나의 서원과 기도는 단순히 아들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육신적 소욕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신정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가 사무엘의 출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고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21-28절).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시대가 죄악으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메시아의 그림자(모형)로 살았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출생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과 구원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한 헌신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감사 찬양(1-11절)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죄,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12-3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2절).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12절). 결국 엘리 가문은 이 불량한 아들들로 인하여 엘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무서운 심판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들이 불량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17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는 여전히 불량자의 불경건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사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교만과 불순종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삿 17: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본 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1-9절), 예언을 주시고(10-18절)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굳건히 세우시는(19-21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분석하거나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딤후 3:15).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도록 하십시오(엡 4:1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호와와 영광을 훼방한, 엘리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패배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편에 서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성결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3절). 그 결과 그들은 더욱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수 7:6).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어리석게도 원망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참담함을 겪어야 했습니다(21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식적 종교 의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영적 지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회개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죄를 미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오만과 우상숭배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강력한 징계와 형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무력한 그들의 우상과 달리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임을 증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블레셋의 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거룩한 영광을 훼손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권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까지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 창조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신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언약궤 때문에 곤경에 처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종교관습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와 정성을 들여 여호와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명예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가 자신의 송아지를 놓아두고 수레를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법궤가 뻔세메스로 곧장 향하자 그들은 과연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아래 굴복하며 신앙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뻔세메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19절). 법궤가 뻔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봄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지 않은 비밀들을 찾아내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난 복음의 신비를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엡 2:5).

기도 제목 / ①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미스바대성회를 전후한 신앙개혁운동과 블레셋 전쟁에서의 승리, 회복된 이스라엘의 평화와 사무엘의 사역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2절).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적인 회개와 영적갱신을 위한 미스바대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열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5절). 오늘날 우리도 모든 욕심과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분의 다스리심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마 6:33).

한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위에 세워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의 부흥과 함께 영토가 확장되고 모든 면에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13절).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히 13:6).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 이후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 하에 안정과 평화를 누렸지만 사무엘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이전이 부패한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사무엘을 대신하여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꽤 지혜로운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에 바탕을 둔 악한 요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과 체제를 바꾸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철저한 회개와 자기부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개선이나 체제의 변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시련의 때를 허락하시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고 이기게 하십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 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시련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사울의 인물됨을 소개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선택된 것을 알려 주십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선 일과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사무엘과 나눈 이야기 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청되는 자질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 “베냐민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1-2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자신은 지극히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21절).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먼저 기름부음 받은 사울과 세 가지 예언과 그 세 가지 예언의 성취를 통해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1-8절). 그리고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응하게 하심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적합한 마음을 사울에게 주셔서 새 사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옛 성품과 자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17-18절). 지난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기 지식과 경험, 돈과 사람, 조직과 제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침입으로 인한 야베스의 위기(1-4절),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사울(5-11절) 그리고 사울의 공식 즉위(12-15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도자와 자기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역사를 보여줍니다(6-7절).

암몬 자손의 갑작스러운 침략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중 모세를 믿었더라”(출 14:31).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화목제를 통하여 종교적 열정으로 승화 시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12-15절)? 처음 믿었던 그 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② 강기업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돌아왔습니다. 또 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변영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 변영을 경험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위협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통치를 더 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22절)라고 하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라”(24절)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얼마나 많았으며, 또 그 결과는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게 보려고 하며 도리어 인간 권세를 크게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보철로 씻기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미워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 군은 병기가 3만, 마병이 6천이었으며 그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5절).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을 가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사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디 오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바로 그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는데, 그는 사울에게 책망하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떠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에 쳐들어 올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부득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노라고 애써 변명하였습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신앙심이라는 핑계로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형식적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충 대충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불순종을 낳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에 감사드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블레셋 대군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 왕의 군대는 겨우 600명, 그것도 창과 검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창과 검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었는데, 그 까닭은 블레셋의 군대가 국내 각지에 주둔해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했고, 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모든 철공소를 폐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낮이나 호미 등의 수전이 필요할 때는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매우 용감하였으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부하에게 블레셋 부대에 쳐들어가자고 제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 하였느니라”(6절). 그러자 그 부하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7절)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참으로 요나단의 눈은 저편에 있는 블레셋의 대군이 아니라, 이 편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흔히 ‘플러스 알파’라고 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상태 위에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계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보내어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시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짐승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십니까?” (19절 참고)라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1절 참고)라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2절)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라는 사울의 핑계는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잘못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들림없이 이것을 기뻐하! 것이라고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은 것들을 남기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회개보다 오히려 변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사울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준엄한 심판입니까?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사울 왕의 후계자를 선택하여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7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인정받는 곳, 존경받는 곳에서 십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묵묵히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학교 선교사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키가 약 3미터나 되고 힘이 무척 센 데다가 칼과 창을 잘 쓰는 장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8-9절). 그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그의 도전을 받아 일어서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무서워 떨기만 하였습니다. 이 때 이새의 막내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까지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26절)라고 외칩니다. 그런 뒤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를 퇴색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뒤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관심의 방향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뒤따랐고 인심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7절)라고 말하며 다윗을 한껏 칭찬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9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 니라”(29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중히 되었습니다(30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지키고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존귀하게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를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영적 상태는 매우 비참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것뿐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였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백성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자 다윗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적의도 없고 대항도 하지않는 다윗을 죽이려고 까지 하였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10절).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을 블레셋 싸움터에서 죽게 하려는 등 악한 계략과 행동이 아홉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울의 포악하고도 기괴한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참으로 엉뚱하고 포악하였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그런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삼상 18:10). 즉 사울의 포악한 행동의 근저에는 악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이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 ● ● ● ● ● ● ● ●

조금 나아가사

● 찬송/ 135장(갈보리산 위에) ● 본문/ 마 26:39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뻔히 보시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빌라도의 법정과 골고다 언덕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한걸음씩 나아가셨는지
그림 그리듯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으로 진군(進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헤아려보고,
또 우리 자신도 고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오늘의 본문 말씀 외에도 참고 구절 몇 가지를 더 읽어보시고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십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래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하시고”(눅 9:5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 서서 가시는데 (막 10:32).

- ② 마 26:38 :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 ③ 마 26:39,42,44 : 것처럼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 ④ 아래 참고 구절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 속으로 전진해 가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 18:11).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히 12:2).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조금 나아가사」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슬픔의 사람이셨도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세 가지만 골라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② '갓세마네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의 단락을 읽고...

질문) 갓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세 번씩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니까?

답)

③ '가바다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단락을 읽고...

질문) '가바다'에서 사람들의 경멸과 불의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④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심'의 단락을 읽고...

질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답) 십자가에 형벌에 따르는 ○○○인 고통

⑤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도'의 단락을 읽고...

질문) 고난을 향해 적극적으로 전진한 결과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마 28:6, 고전 15:20)

답) ○○ (마 28:6)

⑥ '조금 나아가사'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면서...

질문)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조금 더 견디며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체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탄과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

1. 감사 /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담당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 간구 /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더 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본문:

제 2 과 ● ● ● ● ● ● ● ●

예수께서 부르실 때

▲ 찬송/ 349장(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본문/ 요 21:11-19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용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어린 양을 부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교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음을 잔잔히 설명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이 자신의 어린양들을 맡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패 투성이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며 고귀한 사명까지 맡기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며,
“내 양을 먹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한 번 정독한 후에 아래 문제들을 풀어 보십시오.

- ① 요 21:3 :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설교

그물수선

기도

물고기 잡기

- ② 마 4:19 :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을 낚는 어부

- ③ 요 18:17 :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 ④ 요 21:11-17 :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물으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하느냐?”

- ⑤ 요 21:11-17 :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

말씀 읽기

1. 설교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 위하여 1. 설교문을 3번 이상 읽으십시오.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께서 부르실 때」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베드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세 가지만 골라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② '실수가 많았던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베드로의 삶에 있었던 큰 잘못들을 관련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답)

물 위를 걸음

·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일

·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심

· 예수님을 의심한 일

· 여자 하인 앞에서

·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일

③ '낙심한 자를 찾아오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오

님

④ '내 양을 먹이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답)

⑤ '희생이 필요함'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님의 부탁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베드로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 ○○과 새 ○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⑥ '부르심에 응답하라'의 단락을 읽고...

- 질문) 여러분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려 합니까? 이번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 오
-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를 찾으셨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기꺼이 예수님의 양을 치고 돌보시겠습니까? 오늘, 아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

1. 감사 /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 간구 /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저희의 신앙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제 3 과

누구든지

▲ 찬송/ 101장(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본문/ 롬 10:13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축복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구원임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지도
비교적 상세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며
복음의 핵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 ① 롬 10:13 :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 자

- ② 롬 10:13 :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 ③ 롬 10:14: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는 일 → 예수 그리스도를 ○○ 일

→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

- ④ 롬 10:13 : 이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누구든지」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②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③ '주님의 능력'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사 40:34

④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습니까? 두세 가지를 골라서 말해 보십시오.

답)

⑤ '오직 예수 이름 부름'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러분은 주로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 자신의 간증을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이번 주일은 굉장히 멋진 날입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주일은 온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에 여러분의 감사 제목 속에 복음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감사의 기초와 초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제 다함께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하십시오. 다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1. 감사 / 저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복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곧 복음의 복을 사모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제 4과 ●●●●●●●●

핑 계

● 찬송/ 219장(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본문/ 눅 14:16-24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은혜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찮은 핑계로써
영원한 구원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를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자신의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시며 교제하자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여러분은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간악한 핑계들을
찾아내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 ① 눅 14:16-17 : 아래 단어들을 보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해 보십시오.

큰 잔치
많은 사람
청하였다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 ② 눅 14:18-20 :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
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서로 알맞은 것을 연결해 보십시오.

· 발을 씻으매 못 가겠노라(18절) ·	· 돈 버는 데 바쁜 사람들
· 소를 시험하려 가니 못 가겠노라(19절) ·	· 일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
· 장가들었으니 못 가겠노라(20절) ·	· 하나님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
- ③ 눅 14:24 : 핑계를 대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핑계」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① '큰 잔치의 비유'의 단락을 읽고...

질문) '큰 잔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큰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답)

② '나는 밭을 샀으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나는 밭을 샀으매'라고 핑계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③ '나는 소 다섯을 시험하러 가니'의 단락을 읽고...

질문) '나는 소 다섯을 시험하러 가니'라고 핑계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④ '나는 장가들었으니'의 단락을 읽고...

질문) '나는 장가들었으니'라고 핑계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판해 보십시오.

답)

⑤ 「핑계」의 설교문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에 날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번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서로 나누어 보
십시오.

답)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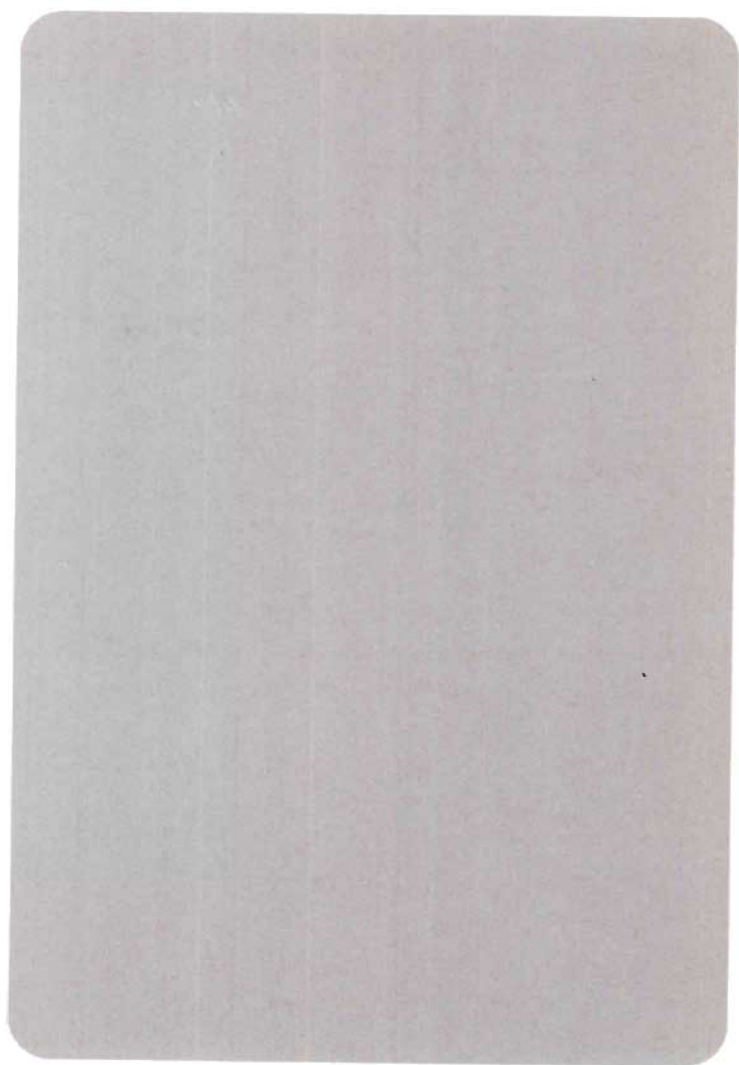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초대입
니다. 부디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그 초대
를 거절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신
의 거하시는 바 천국에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재산이나 직업이
나 가정 때문에 주님의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곧 천국으로의 초대는 온 세상보
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에 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
십시오. 핑계 거리를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
에게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도 잔치에 나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

1. 감사 / 본래 주님을 찾지 않았고 찾을 수도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찾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 간구 /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잔치의 풍성함과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토동평이론두코방심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토동평이론두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3년 1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조규호(1-7일), 이재영(8-14일), 이성진(15-22일),

최성규 (23-30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물]
